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7. 11. ~ 07. 17.

전남농업정보

93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엽근 · 양념채소 관측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장흥 원목 표고버섯, 해외서도 인기
- 순천시 농 · 특산물 미국 시카고까지 점령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벼 신품종 전남1호 재배농가의 경영성과
- 조 파종부터 정식, 수확까지 기계화 재배가능

정책동향

- 센서기 단체표준 등록으로 스마트팜 산업화 기반 공고화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으로 새 도약 발판

사업신청 및 홍보

- 전남 정보화농업인 400명 한자리에 집결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 5

▸ 장마전선 영향으로 15~16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강수량은 평년(4~17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주간 동향(관측정보) ····· 8

▸ 엽근채소 (배추·무·감자·당근) 관측
▸ 양념채소 (마늘·대파·건고추·양파) 관측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0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2

▸ 여수시, 기능성잡곡 친환경재배 및 6차산업화 추진
▸ 곡성군, 체리 재배교육 틈새 소득과수 육성 힘써
▸ 고흥군,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 '전남 최고'
▸ 화순군, 스마트팜 과학영농 선도
▸ 장흥군, 명품 장흥한우 뒤에 좋은 조사료가 있다
▸ 해남군, 느타리버섯 신품종재배로 활로를 찾는다
▸ 영광군, 농산물 가공기업 ㈜삼원로지스틱스와 투자협약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9

▸ 장흥 원목 표고버섯, 해외서도 인기

▸ 순천시 농·특산물 미국 시카고까지 점령

▸ 광양시, 매실식품 중국 수출길 뚫었다!

▸ 담양한과, 알리바바그룹과 공급계약 물량 전격 수출 개시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3

▸ 토마토 시설농가의 측정된 환경 및 생육데이터 분석 활용기술

▸ 벼 신품종 전남1호 재배농가의 경영성과

▸ 신선초의 친환경 인증 유형별 수익성

▸ 유통채널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 포장박스 구성요소 및 표기사항 분석

▸ 조 파종부터 정식, 수확까지 기계화 재배가능

▸ 고온기 방울토마토, 저압포그 냉방으로 생산성 향상

▸ 전남농기원, ICT 거점지원센터 스마트팜 허브로 급부상

▸ 모싯잎송편 원료 '모싯잎' 최대생산 기술 밝혀

▸ 참다래 새 품종 '골드원' 재배관리 배운다

▸ 가을사과 아삭함 그대로 다음해 여름까지 저장한다

❀ 정책 동향 39

▸ 센서기 단체표준 등록으로 스마트팜 산업화 기반 공고화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으로 새 도약 발판

▸ 전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85억 추가지원

❀ 해외 농업정보 43

▸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농업기술 협력 전략개발과 협력국 확대

▸ 곡물의 무한한 변신(미국 뉴욕)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7. 11.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좋은 수확 조건과 순조로운 수확 진행으로 인해 전일 대비 1.1% 감소하였음.

• 옥수수 : 미국 옥수수 선물가격은 이번 주 최근 2년래의 최저가격을 기록한 이후 매도커버와 Bargain buying으로 인해 전일 대비 2.3% 상승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가격은 활황종목인 대두 계약이 6주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Bargain buying으로 인해 다시 상승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6

▸ 전남 정보화농업인 400명 한자리에 집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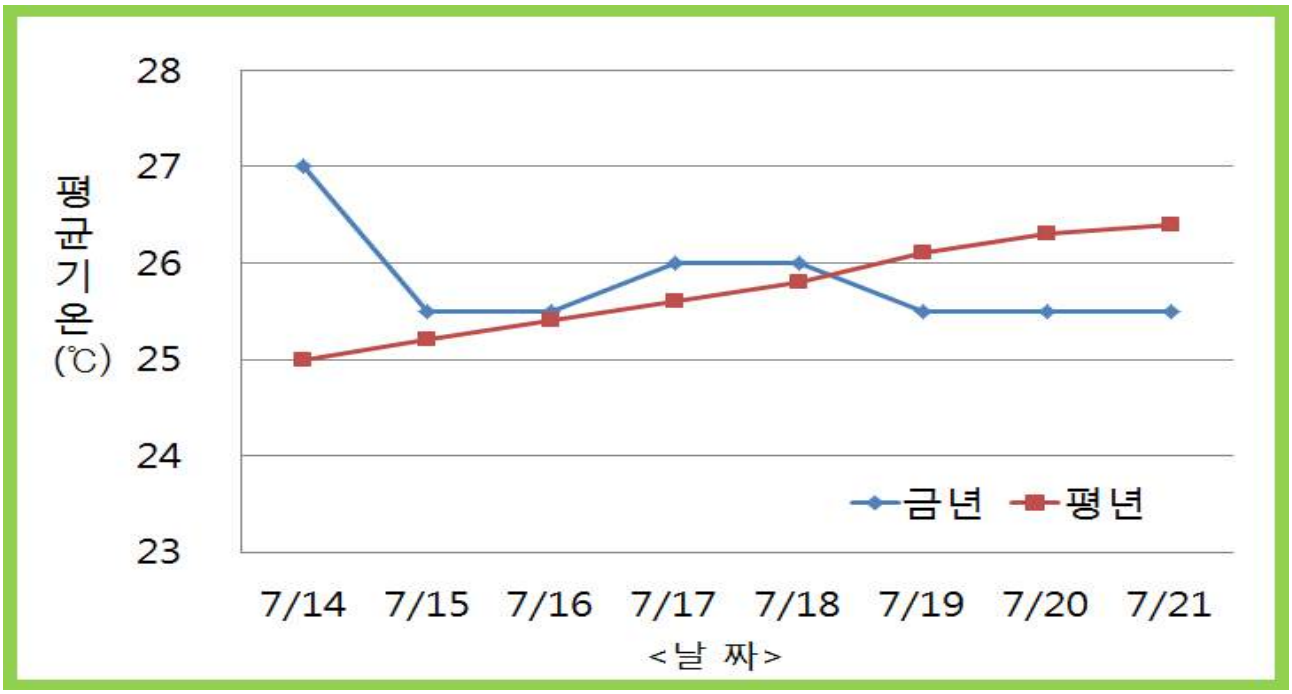
▸ 농식품부, 「米's Korea를 찾아라!」 공모전 추진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5.8	25.7	0.1	28.5	29.8	-1.3	23.1	22.7	0.4	9.9
7. 14.(목)	27	25	2	31.0	28.8	2.2	23.0	22.2	0.8	16.7
7. 15.(금)	25.5	25.2	0.3	27.0	29.1	-2.1	24.0	22.4	1.6	14.3
7. 16.(토)	25.5	25.4	0.1	28.0	29.5	-1.5	23.0	22.5	0.5	12.7
7. 17.(일)	26	25.6	0.4	29.0	29.7	-0.7	23.0	22.6	0.4	10.4
7. 18.(월)	26	25.8	0.2	29.0	30.0	-1.0	23.0	22.7	0.3	7.3
7. 19.(화)	25.5	26.1	-0.6	28.0	30.3	-2.3	23.0	22.9	0.1	5.5
7. 20.(수)	25.5	26.3	-0.8	28.0	30.5	-2.5	23.0	23.1	-0.1	5.5
7. 21.(목)	25.5	26.4	-0.9	28.0	30.5	-2.5	23.0	23.2	-0.2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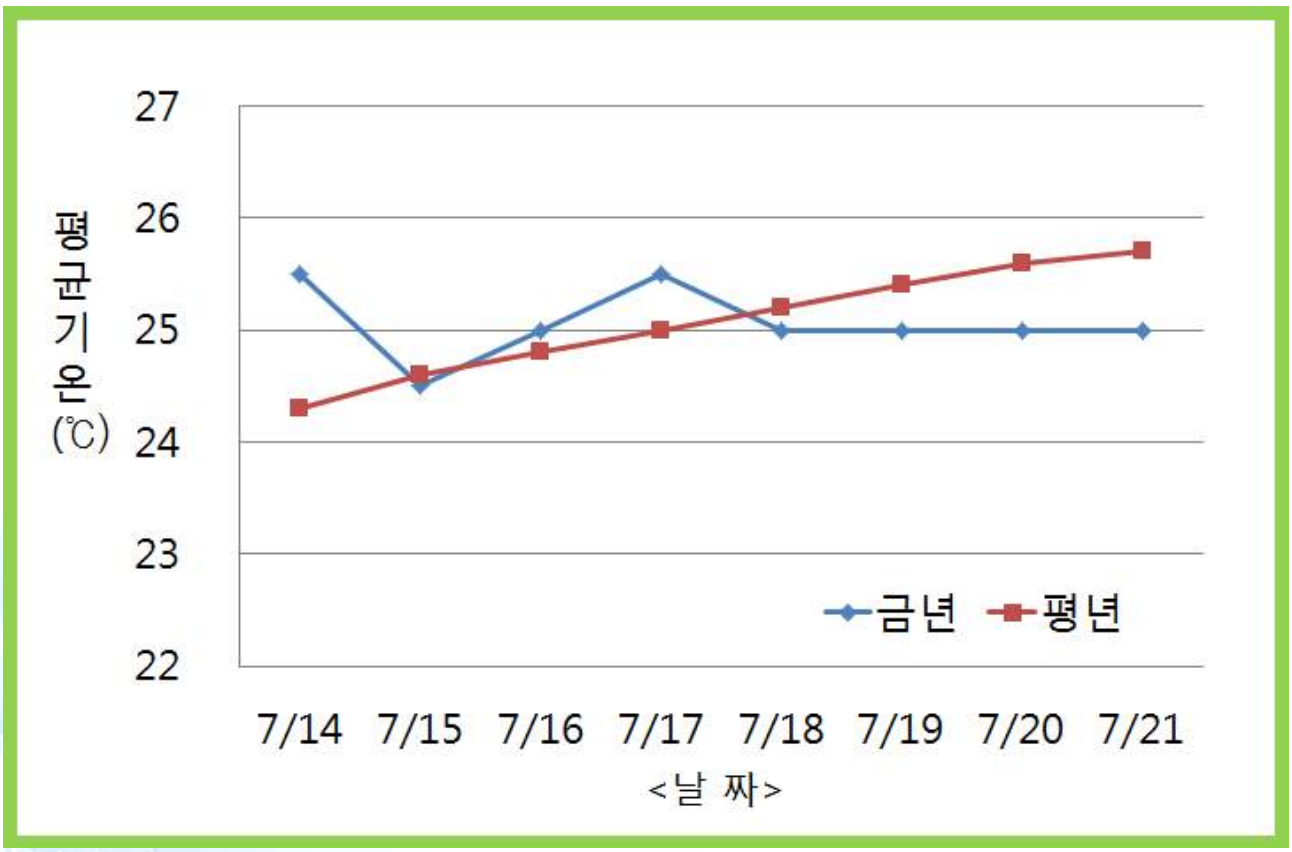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5.1	25.1	0.0	27.3	28.6	-1.3	22.9	22.6	0.3	7.6
7. 14.(목)	25.5	24.3	1.2	29.0	27.7	1.3	22.0	22.0	0.0	12.4
7. 15.(금)	24.5	24.6	-0.1	26.0	28.0	-2.0	23.0	22.2	0.8	11.8
7. 16.(토)	25	24.8	0.2	27.0	28.3	-1.3	23.0	22.4	0.6	10.3
7. 17.(일)	25.5	25.0	0.5	28.0	28.5	-0.5	23.0	22.5	0.5	8.2
7. 18.(월)	25	25.2	-0.2	27.0	28.8	-1.8	23.0	22.6	0.4	5.1
7. 19.(화)	25	25.4	-0.4	27.0	29.0	-2.0	23.0	22.8	0.2	4.3
7. 20.(수)	25	25.6	-0.6	27.0	29.2	-2.2	23.0	22.9	0.1	3.7
7. 21.(목)	25	25.7	-0.7	27.0	29.2	-2.2	23.0	23.0	0.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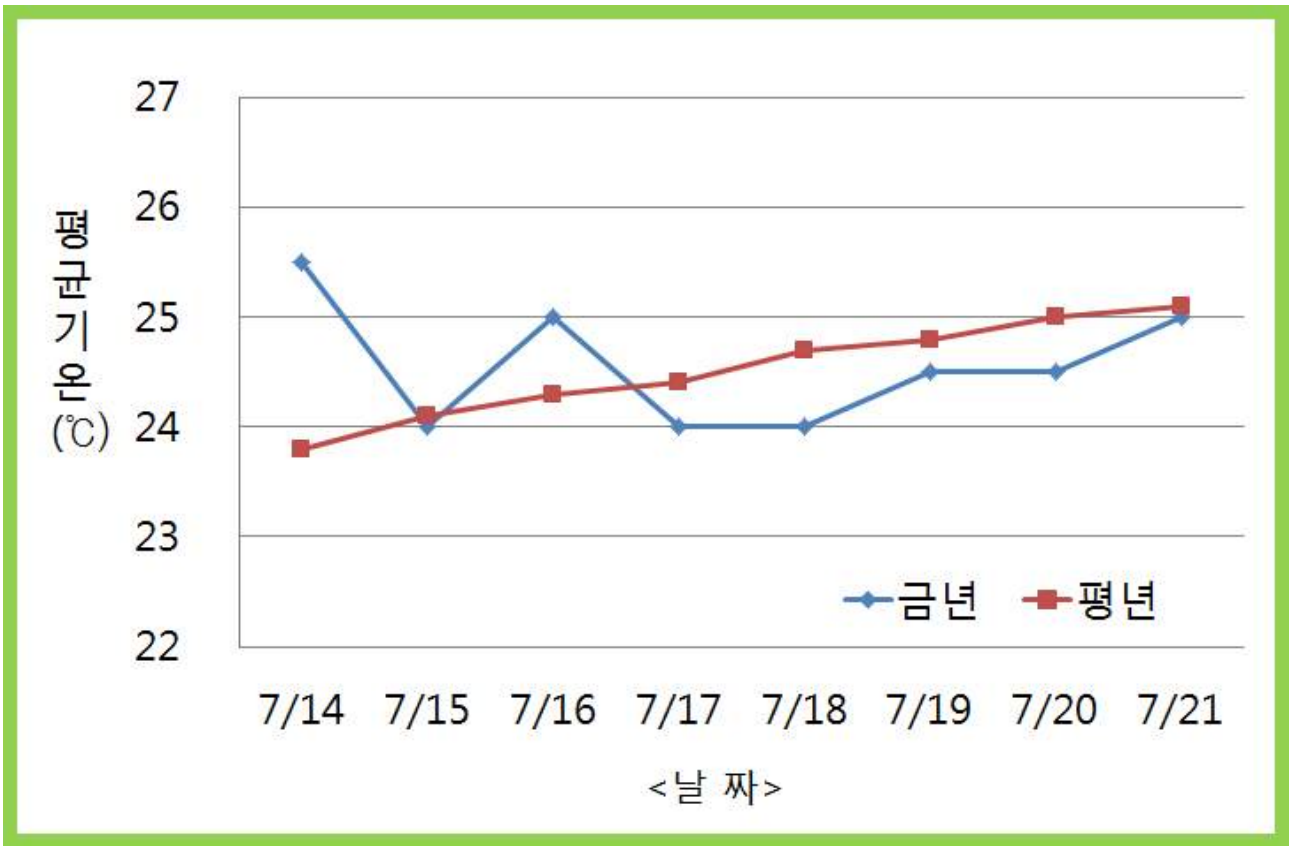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4.6	24.5	0.0	26.4	27.4	-1.0	22.8	22.4	0.4	9.5
7. 14.(목)	25.5	23.8	1.7	28.0	26.5	1.5	23.0	21.9	1.1	13.8
7. 15.(금)	24	24.1	-0.1	25.0	26.9	-1.9	23.0	22.1	0.9	12.6
7. 16.(토)	25	24.3	0.7	27.0	27.0	0.0	23.0	22.2	0.8	11.3
7. 17.(일)	24	24.4	-0.4	26.0	27.3	-1.3	22.0	22.3	-0.3	10.0
7. 18.(월)	24	24.7	-0.7	26.0	27.6	-1.6	22.0	22.5	-0.5	7.4
7. 19.(화)	24.5	24.8	-0.3	26.0	27.8	-1.8	23.0	22.6	0.4	5.4
7. 20.(수)	24.5	25.0	-0.5	26.0	28.0	-2.0	23.0	22.7	0.3	6.6
7. 21.(목)	25	25.1	-0.1	27.0	28.1	-1.1	23.0	22.9	0.1	8.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 동향(관측정보)

엽근 채소 관측

❑ 배추는 지난해보다 상승하나, 무는 하락할 전망

○ 배추는 고랭지배추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높은 6,500원/10kg 내외 전망

○ 무는 노지봄무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은 10,000원/18kg 내외 전망

○ 감자(수미)는 노지봄 및 준고랭지감자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은 15,000원/20kg 내외 전망

○ 당근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26,000원/20kg 내외, 양배추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0원/8kg 내외 전망

❑ 감자를 제외한 엽근 채소류 가을작형 재배의향 감소

○ 고랭지작형 재배면적은 배추와 무가 지난해보다 4~10% 감소하나, 감자·당근·양배추는 6~27% 증가

○ 7월 출하될 고랭지작형 생육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부진

○ 가을작형 재배의향 면적은 배추·무·당근·양배추가 6~7% 감소하나, 감자는 17% 증가

○ 향후 재배의향은 정식(파종)기와 대체작물 가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엽근채류 고랭지 및 가을작형 재배(의향)면적 지난해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 분	배추	무	감자	당근	양배추
고랭지	-6.0~-3.6	-9.5	7.3~9.6	26.9	5.8
가 을	-6.2	-6.5	17.1	-6.6	-5.8

양념 채소 관측

❑ 마늘·대파 가격 지난달 대비 약세, 건고추·양파는 보합세 전망

○ 건고추는 재고량이 많아 지난해보다 낮고, 지난달 대비 보합세인 7,000원/600g 내외 전망

○ 난지형 마늘은 생산량이 증가한 대서종 출하량 증가로 전월 대비 약세 전망

○ 양파는 2016년산 중만생종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으나, 지난달과 비슷한 600~800원/kg 전망

○ 대파는 여름 노지대파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와 지난달 대비 약세인 1,000~1,300원/kg 전망

❑ 2016년산 마늘·양파 생산량 지난해 대비 증가 전망

○ 건고추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4~7% 감소하나, 초기 생육은 양호한 상황임

○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지난해 대비 11% 내외 증가 전망

○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지난해 대비 18% 증가 전망

○ 대파 3~6월 정식면적은 지난해 대비 7% 증가, 7~9월 정식의향은 2% 감소할 전망

❑ 양념채소 생산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 분	2016년산 건고추 재배면적	2016년산 마늘 생산량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여름·가을·겨울 대파 정식면적
전년대비	-7.4~-4.2	9.0~12.3	18.2	6.8
평년대비	-22.8~-20.1	-11.8~-9.2	-6.9	-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7. 1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11)	1주일전 (07/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39,800	41,467	▼ 9.0	▼ 12.7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9,000	187,133	▲ 7.9	▼ 19.8
	고구마(밤)	10kg	28,000	26,400	30,300	37,400	38,307	▼ 25.1	▼ 26.9
	감자(수미)	20kg	19,400	19,600	25,800	26,600	23,453	▼ 27.1	▼ 17.3
채소류	배추(봄)	1kg	700	570	588	700	590	0.0	▲ 18.6
	양배추	10kg	6,500	6,700	5,900	7,350	5,300	▼ 11.6	▲ 22.6
	오이(다다기계통)	10kg	19,667	16,000	12,750	18,445	22,672	▲ 6.6	▼ 13.3
	애호박	8kg	17,400	11,600	12,050	10,450	11,897	▲ 66.5	▲ 46.3
	토마토	10kg	15,000	13,200	13,550	18,000	17,280	▼ 16.7	▼ 13.2
	당근	20kg	30,200	30,600	31,400	30,700	33,073	▼ 1.6	▼ 8.7
	건고추(화건)	60kg	710,000	710,000	710,000	820,000	834,000	▼ 13.4	▼ 14.9
	풋고추	10kg	48,400	49,400	32,800	36,500	36,193	▲ 32.6	▲ 33.7
	마늘(깐마늘)	20kg	153,000	165,000	175,500	130,000	107,160	▲ 17.7	▲ 42.8
	양파	20kg	13,600	14,000	15,100	22,050	15,760	▼ 38.3	▼ 13.7
	대파	1kg	1,690	1,740	1,953	2,270	1,424	▼ 25.6	▲ 18.7
	파프리카	5kg	13,000	15,000	18,250	13,850	16,597	▼ 6.1	▼ 21.7
	멜론	8kg	19,600	21,000	28,400	19,550	23,138	▲ 0.3	▼ 15.3
	방울토마토	5kg	15,400	11,400	12,500	12,400	11,253	▲ 24.2	▲ 36.9
	수박	1개	16,000	14,400	13,900	14,850	14,777	▲ 7.7	▲ 8.3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7,800	38,000	37,200	44,533	55,262	▼ 15.1	▼ 31.6
	배(신고)	15kg	48,600	46,000	44,600	39,600	65,627	▲ 22.7	▼ 25.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11)	1주일전 (07/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6,000	536,000	529,250	532,000	557,867	↑ 0.8	↓ 3.9
	느타리버섯	2kg	14,800	15,000	13,200	15,850	13,767	↓ 6.6	↑ 7.5
	새송이버섯	2kg	7,400	7,800	7,350	7,950	7,787	↓ 6.9	↓ 5.0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922	7,801	7,610	6,913	6,172	↑ 14.6	↑ 28.4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74	2,290	2,228	2,245	2,170	↑ 1.3	↑ 4.8
	닭고기	1kg	5,186	5,442	5,125	5,767	5,811	↓ 10.1	↓ 10.8
	계란(특란)	30개	5,386	5,410	4,928	5,811	5,682	↓ 7.3	↓ 5.2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84	0.0	↑ 6.9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7. 11.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6,018 천원	5,933 천원	5,107 천원	↑ 1.4	↑ 17.8
	거세	7,315 〃	7,390 〃	6,567 〃	↓ 1.0	↑ 11.3
송아지 (6~7월)	암	3,296 〃	3,269 〃	2,638 〃	↑ 0.8	↑ 24.9
	수	4,048 〃	4,029 〃	3,161 〃	↑ 0.4	↑ 28.0
육우(600Kg)		2,572 〃	3,266 〃	3,317 〃	↓ 21.2	↓ 22.4
젖소수송아지(7일령)		386 〃	368 〃	216 〃	↑ 4.8	↑ 78.7
돼지(110kg)		399 〃	399 〃	264 〃	- 0	↑ 51.1
육계(원/kg)		1,422 원	1,660 원	1,412 원	↓ 14.3	↑ 0.7
계란(원/특란10개)		1,058 〃	1,028 〃	1,217 〃	↑ 2.9	↓ 13.0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0	↓ 28.5

※ '15년 생산비(천원) : 한우송아지 3,236, 한우비육우(거세) 5,658,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기능성잡곡 친환경재배 및 6차산업화 추진

○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기능성잡곡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율촌면과 화양면 일원에 고품질 잡곡단지 25ha를 조성하고 이달부터 조·기장·수수 등 기능성잡곡 파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앞서 시 농업기술센터는 잡곡단지를 대상으로 기계수확용 종자 보급, 우량종자 정선법 교육, 잡초 방지용 생분해성 필름 파종법 도입 등을 마쳤으며, 현재는 잡곡생산 기계화와 친환경인증 잡곡의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 여수시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기능성잡곡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2년간 국비 3억 6,000만원 등 총 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능성잡곡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잡곡산업 육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데 힘입어 사업 2년차인 올해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 잡곡단지 조성과 잡곡과자 생산 등 6차산업화로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 기능성잡곡 단지에는 현재 9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여수잡곡영농조합법인은 이들 농가로부터 잡곡을 수매해 자체 개발한 브랜드인 '여수별곡'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여수별곡은 로컬푸드 매장과 온라인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혼합곡으로 구성된 잡곡 선물세트는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출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곡성군, 체리 재배교육 틈새 소득과수 육성 힘써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은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센터 대청마당에서 체리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틈새 소득과수 육성을 위한 체리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 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늘어나는 체리 수요량에 비해 국내 체리 공급량이 적어 외국산 체리가 소비자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어 틈새 소득과수로 체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 특히 교육은 체리 재배적지 선정, 체리 대목 및 품종선택, 초기 수형관리 등의 내용으로 과수특작팀 윤현석 지도사가 진행했다.

○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맛과 기능성이 뛰어난 체리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 틈새 소득과수로 육성해 고품질 체리를 생산한다면 수입체리에 맞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 한편, 민선6기 곡성군은 체리·플럼코트 등 소과류를 틈새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식재지원 및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고품질 생산체계를 갖추어 새로운 소득과수로 육성할 계획이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 '전남 최고'

- 무사고 환급제도 첫 도입... 9,249ha 가입, 계획 면적대비 112% 달성 -

○ 고흥군의 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군은 지난 4월부터 6월 24일까지 총 9,249ha에 대해 벼 재배보험 가입을 완료해 당초 계획 면적인 8,268ha보다 981ha 초과 달성되어, 계획 면적대비 11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 이는 지난해 군 가입면적인 5,326ha와 비교했을때 74% 증가한 수치로, 고흥군의 뒤를 이어 장흥군 5,496ha(101%), 강진군 6,459ha(96%), 영광군 6,406ha(92%) 순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특히 해안지역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군은 이처럼 벼 보험가입이 늘어난 것은 올해 첫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과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무사고 환급제도'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지리적 여건상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다른 농작물도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가능한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고흥군

화순군, 스마트팜 과학영농 선도

– 생산성 향상, 온실관리 시간절감 –

○ 스마트팜을 적용해 첨단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화순군이 시설원예에 스마트팜(smart farm·지능화 농장)을 도입한 결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온실관리 시간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화순군에 따르면 대추토마토 농장에 스마트팜을 적용, 전보다 잿빛곰팡이, 흰가루병 등 병 발생이 줄어 수확량은 26kg/3.3㎡으로 생산성이 18% 향상됐다.

○ 또한 스마트폰과 PC 제어에 의한 최적 생육 환경조절로 온실관리 시간이 기존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50% 절감되고,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통해 편리성은 4배 이상 향상됐고, 최첨단 과학영농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스마트팜은 IT 융합장비를 이용해 작물 생육 환경정보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작물에 최적 환경을 설정해 에너지 소비와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최첨단 농업기술이다.

○ 화순지역 스마트팜 활용은 52ha, 45농가로 전국 제일의 규모다.

○ 지난해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스마트팜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스마트팜 활용에 선도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타 지역 농업인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소장은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해 FTA 대비 첨단농업기술 보급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화순군

장흥군, 명품 장흥한우 뒤에 좋은 조사료가 있다

○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신품종 육성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장흥군(군수 김성)은 관산읍 장흥한우 육종단지에서 운영 중인 '목초 신품종 육성 및 이용촉진 연구사업'이 양질 조사료 생산과 사료비 절감 등의 목표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연구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최근 개발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신품종인 '그린팜Ⅱ'를 남부지역의 지역 적응성과 생산량을 실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 농촌진흥청의 국비 출연금이 지원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파종부터 금년 6월 채종에 이르기까지 조사료 전문가와 연구관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졌다.

○ 국내 육성 사료작물 신품종인 '그린팜Ⅱ'는 지금까지 개발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가운데 수확시기가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으로 가장 빠르며 조단백질(DCP) 함량이 많아 사료가치가 높고 기호성이 좋다.

○ 또한 초기 생육이 빠르고 재생력이 좋아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하고, 방목·건초·사일리지 제조 등 용도가 다양하다. 특히 경기도 등 우리나라 북부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내한성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채종한 '그린팜Ⅱ'를, 관산읍 농안리에 있는 사료작물 정선시설을 활용해 종자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정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달 내에 농가보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출처 : 장흥군

해남군, 느타리버섯 신 품종재배로 활로를 찾는다

– 맛과 향이 뛰어나 기존 품종보다 20~30% 가격 높아 –

○ 해남군은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종균을 분양받아 해남군 종균배양소(청록영농조합법인 / 윤재평)에서 증식하여 지난 5월 14농가 24동에 공급 재배한 결과 맛과 향이 뛰어나고 수량도 높은 고품질 버섯을 생산, 한창 출하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기존 품종보다 20~30% 높게 형성(11,000~15,000원/2kg)되어, 재배사 1동(165㎡)기준 7,000천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 2013년에 육성된 느타리버섯 '곤지7호'는 갓이 둥글고 진회색이며 대가 굵고 긴 형태로 백색을 나타내 소비시장에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우리지역 버섯 재배농가에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 버섯은 항암효과부터 항염증, 성인병 예방, 면역기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현대인의 건강식으로 좋은 식재료이다.

○ 해남군은 새로운 버섯 보급 및 우수한 품종 보급으로 버섯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 출처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영광군, 농산물 가공기업 ㈜삼원로지스틱스와 투자협약

– 대마산단 부지 11,034㎡, 132억 투자, 120여명 고용창출 –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월 7일 농산물 가공기업 ㈜삼원로지스틱스 (대표 최국진)와 투자협약(MOA) 체결식을 가졌다.

○ ㈜삼원로지스틱스는 지난 7월 1일에 부지 11,034㎡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대마산업단지에 총 132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햅썹(HACCP) 시설을 갖춘 공장을 금년까지 신축하고 120여명의 지역주민들을 고용할 계획이다.

○ 주로 양파·당근·대파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우수 농산물과 투자기업의 엄격한 가공·포장·공정을 결합하여 만두재료를 생산하게 되어 농산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망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삼원로지스틱스는 2015년 설립된 신생기업이지만 ㈜삼원씨푸드와 삼원식품㈜에 납품계약 이미 완료하고 원활한 체인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에 화성지사를 설립하고 집하장을 설치한 바 있다.

○ 최국진 대표는 “사업 특성상 원자재의 적기 수급과 수도권 물류 거점으로 대마산단이 최적이라고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했다”며 “영광군을 대표하는 웰빙 식자재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 한편 김준성 영광군수는“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우리지역에서 뿌리내리게 된 것을 전 군민을 대표하여 환영한다.”며 “지역 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직접고용 효과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영광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장흥 원목 표고버섯, 해외서도 인기

– 2017년 5월까지 1년간 홍콩 35, 일본 4톤 수출 19억원 상당 –

○ 전라남도는 전국 건표고 생산 1위를 점유한 '장흥 원목 표고버섯'이 2017년 5월까지 1년간 정남진장흥농협에서 홍콩으로 35톤, 일본으로 4톤 등 총 19억원 어치를 수출한다고 5일 밝혔다.

○ '장흥 원목 표고버섯'은 천혜 자연환경의 참나무 원목으로 재배돼 향이 좋고 육질이 단단해 국내시장은 물론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 특히 장흥에선 톱밥 재배 방식으로 생표고를 주로 생산하는 타 지역과 차별화 해 편백나무와 소나무 등의 자연환경에서 원목 생산을 고집하는 600여 명의 생산자가 연 500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장흥 원목 표고버섯'은 산지 경매를 통해 연 100억원 가량이 수매돼 국내외로 유통되고 있다.

○ 국내에서는 하나로마트를 통해 25억원,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에 8천만원, 직거래로 20억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으며, 정남진장흥농협·CJ몰·우체국 등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 전라남도는 타 시도와 비교우위에 있는 원목 표고버섯에 대해 자목 구입비, 포장재, 현대화 시설, 가공장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원목 표고재배에 피해가 발생된 것과 관련, 비가림 등 현대화 시설이 필요한 임가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보조금 4억원을 확대 지원했다.

○ 또한 표고버섯 등의 임산물 수출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억원(2개소) 규모인 '2017년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 공모사업' 참여 희망자를 조사해 오는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 농·특산물 미국 시카고까지 점령

○ 순천시에서 생산된 김치, 반찬류, 매실원액 등 1억원 상당의 농·특산물이 5일 시카고에 이어 6일 LA 수출 길에 올랐다

○ 이번 수출 길에 오르는 품목은 40여개는 생태도시 순천의 깨끗한 물, 토양에서 자란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이 HACCP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를 통해 관리돼 품질과 안정성이 모두 확보된 제품들이다.

○ 특히 이번 미국 수출에 있어 주목할 점은 우리 시 농·특산물이 지난해 서부시장인 캘리포니아 시온마켓을 시작으로 올해는 중부시장의 중심인 시카고까지 판로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 새로운 수출라인으로 떠오른 시카고 푸드는 미 중서부 일대에 한식 식자재 등을 도매로 공급하며, 자회사로 유통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업체로 다민족 마케팅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 농식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다.

○ 또한, 시온마켓에 수출되는 농특산물은 지난 해 9월 판촉행사 후 꾸준한 프로모션으로 고정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 5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안정적으로 미국시장에 정착해 가고 있다.

○ 시 관계자는 “농·특산물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해외 유통매장과 연계해 시키고와 LA 등 7개 매장에서 현지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행사 후에도 정기적 프로모션으로 소비자 친숙도를 높여 행사 품목을 마트 입점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순천시

광양시, 매실식품 중국 수출길 뚫었다!

- 2017년 12월말까지 청매실 가공식품 등 50만불 중국 수출 합의 -

○ 광양시 특산물인 매실 가공식품이 국제 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샤먼시 샤상그룹과 수출계약을 맺고 중국땅을 밟게 됐다.

○ 시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샤상그룹 바이어를 초청해 청매실농원 등 매실식품 가공시설을 견학하고 광양매실 가공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 수출상담회 결과 올해 하반기에 중국내 현지 홍보기간을 거쳐 2017년 말까지 50만불 상당의 광양매실 제품을 수출하기로 합의하였다.

○ 특히, 중국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평가를 받은 매실농축액·청·장아찌·청매단 등 청매실식품은 내년부터 샤상그룹 계열 200개 매장에 입점할 예정이며 향후 중국전역으로 시장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 또 매실식초·막걸리·백운복분자주 등도 바이어들의 좋은 호응을 얻어 자체 시음회를 거쳐 수출 여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 김병호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광양매실 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향후 해외판로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수출물량이 확정되면 샤상그룹과 광양 농·특산물 수출확대 MOU를 체결하고 현지 홍보와 수출상담회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광양시

담양한과, 알리바바그룹과 공급계약 물량 전격 수출 개시

- 올해 말까지 50만달러, 연간 250만달러 중국에 수출예정 -

○ 담양 대표 전통식품인 '한과'가 웰빙 트렌드를 타고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담양한과 명진식품이 알리바바그룹과 한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1일 1차 물량을 수출했다.

○ 군에 따르면 담양한과는 중국 수출을 추진한 지 8년 만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포장디자인과 중국 정부에 상품등록 절차를 완벽하게 마치고 약 4만 6천달러에 해당하는 1차 물량을 수출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 이번 담양한과의 수출 계약은 전통식품 업계의 쾌거이자 대표적인 중국 진출 성공사례로 주목되고 있으며 '알리바바에서 디자인한 최초의 한국 상품 패키지'라는 상징성과 함께 내년 7월까지 총 250만달러(약 30억원)의 계약 물량이 지속적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 이번에 수출하게 된 제품인 '하루영양바'는 한과라는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영양 간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

○ 엿강정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식품명인(33호)으로 인증받은 박순애 대표의 전통기법과 생산 노하우 등이 오롯이 들어간 '하루영양바'는 중국 현지에서 견과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여건과도 잘 맞아떨어진 데다 중국의 전통차 등과도 잘 어울려 현지 상품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 현재 ㈜담양한과 명진식품은 생산시설 규모화를 통해 공급 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한과뿐만 아니라 고유 전통식품 및 농·특산물의 한류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 출처 : 담양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토마토 시설농가의 측정된 환경 및 생육데이터 분석 활용기술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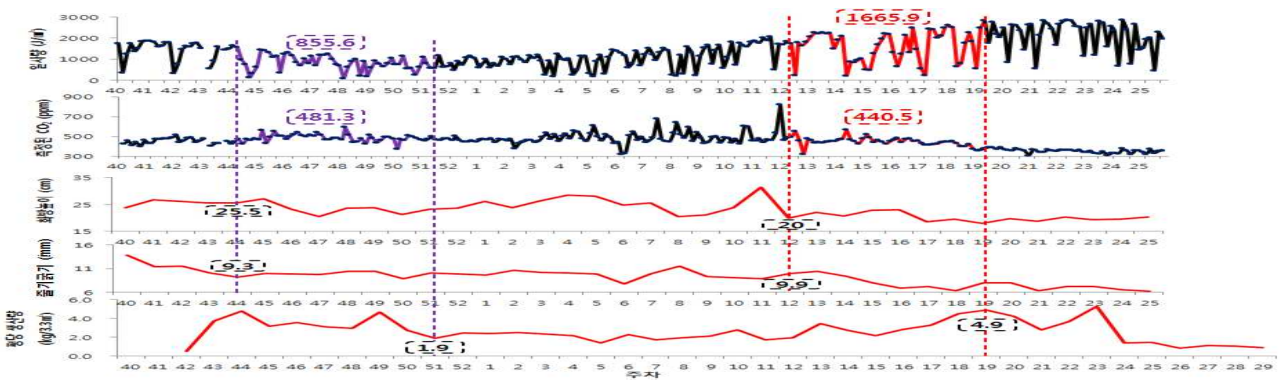
○ 환경 및 생육 정보 수집 : PC에 저장된 분 단위 데이터를 온도는 주·야간으로 구분, 일사량과 CO_2, 환경은 일·주차평균으로 계산

○ 생육 정보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온실 1동에서 1주 1회(토마토 4그루) 생육을 조사하여 한 개의 데이터 세트를 구축

○ 환경과 생육정보간의 상관관계 분석 : 온도, 일사량, CO_2 등의 주요환경과 화방 높이, 줄기 굵기 등의 생육, 생산량의 데이터의 그래프를 그려 시설원예농가의 환경 및 작물 생육 관리도구로 활용

- 측정된 평균 내기, 야간 그래프는 주차별 시계열 그래프, 주·야간 온도 그래프는 주차별 영역형 그래프로 표현하여 온도 모니터링 실시

○ 주차별 일사량, CO_2, 줄기 굵기, 화방 높이, 생산량을 구분하여 시계열 그래프로 토마토가 수확되기 위한 필요한 7주간의 생육기간을 고려한 일사량, CO_2의 환경과 토마토 생육의 연관성을 분석



【일사량, CO_2, 토마토 생육과의 연관성 분석】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온실 환경, 토마토 생육상태 주요 요인의 시각화 및 연관성 분석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자료제공으로 작물 생산성 향상

○ 시·군 센터의 시설원예농가 컨설팅용 영농지도 자료생산, 농가교육 자료로 활용

○ 빅데이터 기반 시설원예온실 환경관리 컨설팅 도구의 분석 콘텐츠 제공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시설원예농가의 ICT기반 온실 환경시스템 보급 및 확산으로 광, 온도, 관수, CO_2,등의 환경정보와 생육(생장 길이, 줄기 굵기, 화방 높이, 개화, 착과 등)정보 수집

- 환경데이터는 시스템과 연결된 PC에서 '분' 단위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일', '주(7일)', 주·야간 단위로 평균온도 계산

- 생육데이터는 복합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온실 1동 내 토마토 4그루(반복)의 주요 생육항목을 정하여 1주에 1번 정해진 시간에 측정하여 기록

○ 가로축에는 주차(시간), 세로축에는 평균 내기, 주·야간 온도를 시간변화 모니터링 그래프를 그림

○ 생산량이 많고 적은 시점을 찾아 그에 따른 일사량, CO_2의 변화, 화방 높이, 줄기 굵기의 변화를 살피면서 환경관리 방법 개선해 나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손장환, 박 신, 조동호, 조명수, 임경호

벼 신품종 전남1호 재배농가의 경영성과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전남1호 재배농가의 10a당 조수입은 962,043원, 소득은 557,784원이었고, 생산비는 639,421원이었음, 고소득 농가(상위 30%)는 731,129원으로 저소득 농가(하위 30%) 427,425원에 비해 71.1% 높았음

○ 전남1호 재배농가의 소득수준별 수익성 (단위 : 원/10a)

구 분			전체평균	소득수준별		
				고소득농가(a)	저소득농가(b)	a/b(%)
주산물 가 액	수 량(kg)		488	479	469	102.1
	단 가		1,923	2,265	1,715	132.1
			937,525	1,084,125	803,836	134.9
부산물가액			29,937	29,937	29,937	100.0
조 수 입			962,043	1,106,221	828,608	133.5
비 용	중간재비		188,172	177,306	178,347	99.4
	경 영 비		404,258	375,092	401,183	93.5
	생산비	1kg당	1,311	1,264	1,345	94.0
		10a당	639,421	604,884	630,275	96.0
수 익	부가가치		773,870	928,915	650,261	142.9
	소 득		557,784	731,129	427,425	171.1
	순 이 익		322,621	501,337	198,334	252.8
노동투입시간			12.8	12.2	12.3	99.1
생산성	노동생산성(원/시간)		60,499	76,425	53,039	144.1
	토지생산성(원/3.3㎡)		2,580	3,096	2,168	142.9
고소득·저소득 경영체 특성	경영주연령(세)		58.8	54.8	57.0	96.1
	경영주학력(교육년수)		11.0	12.0	11.6	103.4
	경영규모(ha)		6.4	6.1	4.8	127.1
	쌀 가공 판매율(%)		26.7	40	20	200.0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조생종 신품종 '전남1호' 확대·보급 및 재배농가의 경영개선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벼 신품종 전남1호 확대·보급을 위한 경제성 비교자료로 활용

○ '전남1호' 재배 희망농가의 경영설계 및 지도 자료로 활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조동호, 손장환, 박 신, 김덕현

신선초의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10a당 소득은 유기재배 5,277천원, 무농약재배 4,617천원으로 일반재배 4,197천원에 비해 각각 25.8, 10% 높았음

○ 신선초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2015)

(기준 : 년 1기작, 원/10a)

인 증 유 형 별	일반재배	무농약재배	유기재배
생 산 량 (kg)	5,939(100)	5,701(96)	5,426(91)
판매가격(원/kg)	1,588(100)	1,779(112)	2,013(126)
조 수 입	9,431,132(100)	10,142,079(111)	10,922,538(116)
경 영 비	5,234,624(100)	5,524,826(106)	5,645,140(108)
소 득	4,196,518(100)	4,617,253(110)	5,277,398(126)
총 노동시간(시간)	430.7(100)	440.8(102)	449.7(105)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친환경 신선초 재배농가의 경영개선 및 경영진단 자료로 활용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친환경재배(유기, 무농약재배) 신선초재배 희망농가 사전경제성 분석결과 제공으로 올바른 의사결정 및 친환경 정책 자료로 사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박 신, 조동호, 손장환, 김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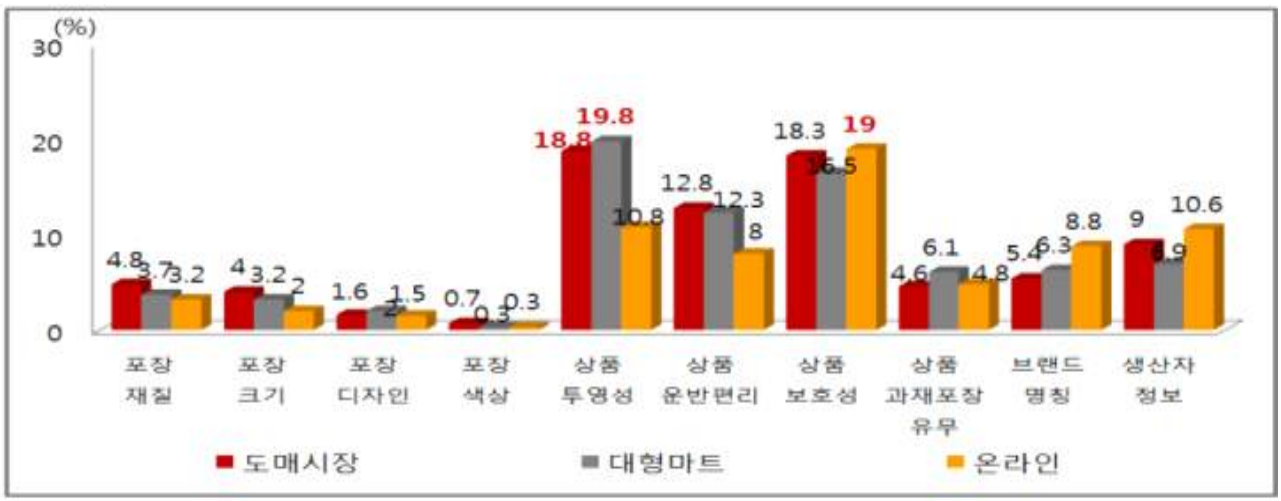
유통채널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 포장박스 구성요소 및 표기사항 분석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사과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기사항 중요순위(%)는 상품투영성(18.8), 상품의 보호성(18.3), 상품의 운반편리(12.8), 생산자 정보(9), 브랜드 명칭(5.4), 포장박스 재질(4.8), 과대포장 유무(4.6), 포장박스 크기(4), 디자인(1.6), 색상(1.6) 순으로 나타남

○ 온라인에서 사과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기사항 중요순위(%)는 상품의 보호성(19), 상품 투영성(10.8), 생산자 정보(10.6), 브랜드 명칭(8.8), 상품의 운반편리(8), 과대포장 유무(4.8), 포장박스 재질(3.2), 포장박스 크기(2), 디자인(1.5), 색상(0.3) 순으로 나타남

○ 포장박스 소재(재질)를 선택하는 이유는 구입단위(중량)에 따라 (59), 사용 후 분리수거 편리성(22.2), 친환경 소재(13.5) 등 순으로 나타남



【유통채널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 포장박스 구성요소】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유통채널별(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거래)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 박스 및 표시를 활용하여 사과를 생산, 판매하는 농업경영체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수취가격 향상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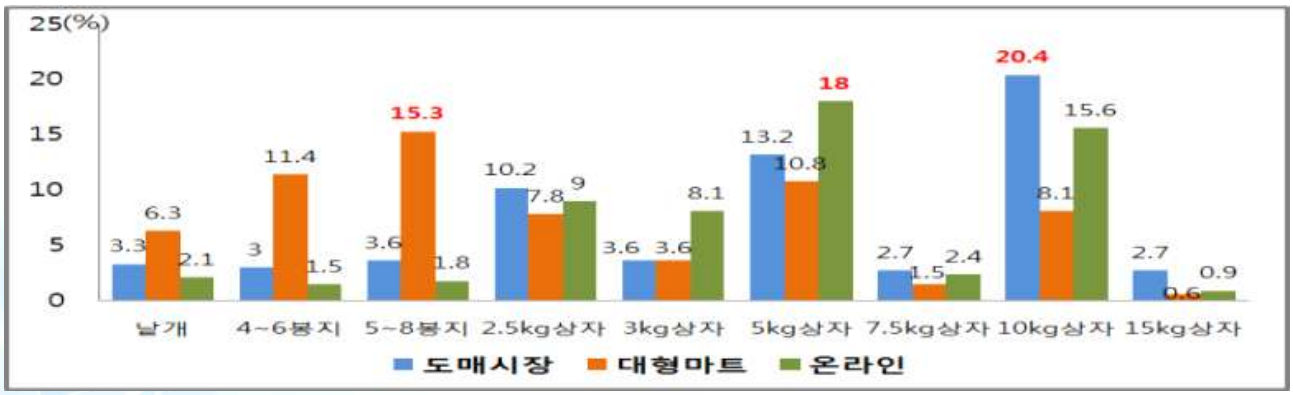
○ 현장 농업인이 사과를 유통시장에 출하할 경우

○ 간접유통(도매시장, 대형마트)에서는 상품투영성(18.8), 보호성(18.3), 운반편리(12.8), 생산자 정보(9), 브랜드 명칭(5.4), 포장박스 재질(4.8), 과대포장 유무(4.6), 포장박스 크기(4), 디자인(1.6), 색상(1.6%) 순을 고려하여 출하해야 함

- 도매시장에서 선호하는 사과의 규격은 10kg 상자 68명(20.4), 5kg상자 44명(13.2), 2.5kg상자 34명(10.2), 5~8봉지 12명(3.6), 낱개 11명(3.3)순, 대형마트는 5~8봉지 51명(15.3), 4~6봉지(11.4), 5kg상자 36명(10.8), 10kg상자 27명(8.1), 낱개 21명(6.3%)순이므로 선호규격을 고려하여 출하

○ 직거래(온라인)에서 사과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기사항의 중요순위(%)는 상품의 보호성(19), 투영성(10.8), 생산자 정보(10.6), 브랜드 명칭(8.8), 상품의 운반편리(8), 과대포장 유무(4.8), 포장박스 재질(3.2), 포장박스 크기(2), 디자인(1.5), 색상(0.3) 순이므로 표기사항을 고려하여 출하해야함

- 온라인에서 5kg상자 60명(18), 10kg상자 52명(15.6), 2.5kg상자 30명(9), 3kg상자 27명(8.1) 순이므로 선호규격을 고려하여 출하



【유통채널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 포장박스 규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손장환, 박 신, 조동호, 조명수, 임경호

조 파종부터 정식, 수확까지 기계화 재배가능

- 기계화 재배로 노동력 절감 및 신소득 작목으로 부상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산잡곡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확대 추세에 맞추어 밭농사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기술개발의 첫 단계로 잡곡 조 기계화 재배를 위한 「잡곡파종기계」, 「자동정식」, 「콤바인수확」 방법 등을 개발하여 전자동 기계화 재배를 달성함으로써 밭작물 기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력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 잡곡은 대부분 직파재배를 주로 하고 있으나 무안·해남·나주 등 대면적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육묘재배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식재배는 직파에 비교해서 초기 묘의 생장이 빨라 잡초방제가 쉬울 뿐 아니라 50%의 종자량과 90% 이상의 작업소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기존의 양파정식기를 확대 적용하여 조를 정식함으로써 인력정식에 비해 90%의 노동 소요시간 절감효과를 보였다.

○ 조 기계화 재배를 위한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력·다수확 재배기술 개발 내용을 보면 첫째, 「전기식 파종기」를 개발 10a당 파종시간이 0.3시간이 소요되어 관행에 비해 파종시간을 95% 절감하였다.

○ 둘째, 기존의 양파정식기를 확대 적용하여 조의 「자동 정식기술」을 개발 10a당 시간이 2.1시간이 소요관행에 비해 정식노동 소요시간을 90% 절감하였다.

○ 셋째, 범용콤바인의 탈곡통 회전수 조절을 이용한 조「콤바인 수확기술」을 개발 10a당 시간이 1.8시간이 소요관행에 비해 수확노동 소요시간이 90% 절감되었다.

○ 넷째, 조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 재배기술을 농가에 현장 실증 재배함으로써 재배법이 개선되어 10a당 수량이 350kg으로 관행 산파재배에 비해 수량이 75%가 향상 되었다.

○ 최근 조·기장·수수를 이용한 식단이 웰빙식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잡곡면적이 '90년대 재배면적이 2만 7천ha 이던 것이 요즈음에는 3만 1천ha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국산잡곡 경쟁력 강화와 소비확대 방안을 위한 국내외 심포지엄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잡곡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조와 같은 야성(野性)이 높은 잡곡을 육묘해서 기계를 이용, 옮겨 심는 등 기계화 재배법이 개발되면서 새롭게 잡곡류 재배법이 바뀌고 있다.

○ 전남농기원 식량작물연구소 김용순 박사는 조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재배가 가능해져 밭작물의 기계화와 작부체계 방법으로 양파나 마늘 후작으로 조를 재배할 수 있는 신기술 재배법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고온기 방울토마토, 저압포그 냉방으로 생산성 향상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고온기 방울토마토 재배온실에 저압포그 냉방장치를 설치하면 온도하강은 물론 수량 증수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 방울토마토의 주요 수요처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소비된다. 따라서 연중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되어 전형적인 봄, 가을, 겨울 중심의 재배작형에서 벗어나 재배시기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5월에서 9월 사이 재배작기는 외부광량 증가와 시설하우스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각종 생리장애 및 병해가 발생되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고온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농가에서는 열선차단필름, 에어컨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열선차단필름은 주기적인 교체 비용 필요하고, 에어컨은 겨울철 난방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돼 경영비에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농기원에서는 2015년 5월에서 6월까지 토마토온실에서 저압포그 노즐을 이용한 냉방효과 실증시험을 추진했다.

○ 이번 저압포그 냉방에 사용되는 저압포그 노즐은 자동차에서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는 기화기에서 사용되는 벤츄리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저압에서도 물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분무할 수 있어 냉방효과는 물론 고압노즐에 비해 물방울이 작아 작물체에 부착해서 나타나는 일소현상도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현장 실증연구 결과 외부 주간온도가 29℃로 고온일 때 완전한 측면개폐가 된 일반포장이 30.6℃가 유지된 반면 저압포그 노즐을 이용한 냉방포장은 평균 26.7℃를 유지할 수 있어 약 3.9℃의 온도하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더불어 방울토마토의 생육은 11%정도 향상되고, 과실무게도 개당 1.6g 늘어났으며, 10a당 수량도 28% 증수되어 고온기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연구사는 “방울토마토 외에 다른 작목도 재배 작기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며 타 작목도 적용할 경우 고온기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량증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농작업 환경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ICT 거점지원센터 스마트팜 허브로 급부상

– 스마트팜 농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원격 기술지원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 구축된 ICT 거점지원센터에서는 스마트팜 농가의 환경데이터를 원격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군 스마트팜 담당자 실습형 전문교육을 ICT 거점지원센터에서 현장기술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기술원내에 구축된 ICT 거점지원센터에서 스마트팜 농가의 환경데이터를 원격 모니터링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군 스마트팜 담당자 실습형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스마트팜은 환경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배온실을 제어하게 됨으로써 개별농가의 환경에 따라 설정방법이 달라지므로 농가마다 기술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따라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산학연사업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원하고 있다.

○ 농업기술원 원에연구소 김희곤 연구사에 따르면 교육은 스마트팜 활용기술이 미흡한 시·군 담당자들에게 ICT 융복합기술을 활용하여 컨설팅 대상농가의 환경관리 테이터를 직접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통합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래프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보고 앞으로 해당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 원격 기술지원 및 현장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모싯잎송편 원료 '모싯잎' 최대생산 기술 밝혀

– 재식 4~6년생 재배 및 첫 수확 후 30일 수확 시 생체수량 증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모싯잎의 송편 등 식품소재, 건강기능성 가공제품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원료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이 필요하여 고품질 식용 모싯잎을 다수확 할 수 있는 기술을 밝혀냈다.

○ 식용 모싯잎 가공현황은 모싯잎송편·머핀·설기떡·모시냉면·국수·건면 등 전통 식품산업에 이용되고 항비만, 변비개선 등 분말 및 식이 섬유를 첨가한 기능성 생리활성 가공식품 제조기술에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모싯잎 고품질 다수확 생산방법은 재식 4, 6년생에서 주당 엽수가 많고 엽장, 폭이 넓어 2년생 생체수량(253kg/10a)에 비해 16~23% 정도 다수확이 가능하다. 또한, 첫 수확 후 20일 간격으로 수확할 경우 수확량이 낮았고, 40일 간격으로 수확할 경우 변색잎이 많아 품질이 떨어지므로 30일 간격으로 수확하는 것이 잎 품질과 생산량에서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우리 도 재배면적은 70ha로 전국 89%를 차지하고 756톤의 모싯잎을 생산, 연매출액 35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박사는 모싯잎 표준 재배기술인 "재식 4~6년생 재배와 첫 수확 후 30일 수확에서 모싯잎 생체수량이 많아 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고품질 다수확 생산방법을 조기에 보급시키고 원료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하여 지역특화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참다래 새 품종 '골드원' 재배관리 배운다

– 농촌진흥청, 7일 전남 보성서 '우수과실 생산, 공동 연수'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초 본격적으로 보급한 참다래 새 품종 '골드원'의 재배관리 안내를 위한 공동연수를 7일 보성 참다래영농조합법인 선과장에서 실시했다.

○ 이번 연수는 참다래 재배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로 품질경쟁력 있는 과실을 생산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골드원' 품종 생산농가와 전남지역 관심농가에서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는 '골드원' 품종이 꽃핀 후 시기별로 열매가 자라는 특성과 품질 경쟁력이 높은 과실생산을 위한 나무 심는 간격, 착과량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참다래는 골드 품종의 시장 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을 높여 소비자가 계속 찾을 수 있는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나무별 적정 착과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참다래 '골드원'은 농촌진흥청에서 2011년에 육성해 2014년 품종 보호에 등록된 품종이다.

○ 열매 무게는 평균 130g으로 상등품의 비율이 높고, 다른 골드 품종에 비해 꽃 솎기 대상인 곁 꽃의 비율이 적고, 당도는 13~17°Brix이다.

○ ‘골드원’ 품종은 전용실시권 계약단체인 대한키위영농조합법인과 우리나라 참다래 생산, 출하의 본보기라 부르는 보성참다래영농조합법인의 협조로 올해 초부터 전남 지역 31농가 5.7ha에서 재배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참다래 ‘골드원’의 재배관리 안내를 위해 주기적인 연수와 교육을 실시해 농가에서 품질경쟁력이 높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점진적으로 보급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남해출장소 곽용범 박사는 ‘골드원’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품종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10년 내에 100ha의 면적에서 연간 3,000톤의 생산목표를 계획했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가을사과 아삭함 그대로 다음해 여름까지 저장한다

– 농촌진흥청, 국산화 성공 '한국형 CA저장고' 개발 –

○ 갓 수확한 사과의 아삭함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형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를 개발했다.

○ CA(Controlled Atmosphere, 기체농도조절)저장은 저장고 안의 온·습도 및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해 농산물의 호흡을 늦춰 품질 변화를 최소화한 저장기술이다.

○ CA저장은 저장기간이 9~12개월로 일반 저온 저장고의 저장기간인 6개월보다 길며, 저장한 농산물의 품질도 훨씬 우수하다.

○ 한국형 CA저장고는 기밀저장고, 질소발생기, 센서, 제어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질소발생기로만 저장고 안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 특히 주입하는 질소의 농도를 조절해 저장고 내부의 산소는 1~3%, 이산화탄소는 0.2~1%로 자동 조절되도록 했다.

○ 또한 사과의 갈변, 저산소 장해 예방을 위해 입고 후 3주간 저온 저장을 하고, 3개월까지는 이산화탄소를 0.5% 이하로, 3개월 이후부터 이산화탄소를 1%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CA저장방법을 자동 조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적용해 사용자의 편이성을 높였다.

○ 정전이나 센서(감지기) 이상 등으로 온·습도 및 기체농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저장고의 작동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개발했다.

○ 2015년 10월 수확한 장수사과 5톤을 8개월간 CA저장한 결과, 상품성을 좌우하는 사과의 무게 감소율이 3.3%로 일반 저온저장 사과의 6.9% 보다 절반 이하로 낮았다.

○ 또한 2014년 충주사과 2톤을 대상으로 경도와 산도품질을 조사한 결과, 일반 저온저장 사과는 7개월이 지나면서 품질이 눈에 띄게 낮아졌으나 CA저장 사과는 품질변화가 적었고, 전문가 관능평가에서 사과의 맛, 냄새, 식감 등 모든 항목에서 일반 저온저장 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한국형 CA저장고 설치비용은 3.3㎡당 약 300만원 정도로 외국산 CA저장고의 1,000만원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특히 질소발생기 1대로 여러 대의 CA저장고를 가동할 수 있다. 3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이 233만원으로 내려가 일반 저온저장고(3.3㎡당 200~250만원)와 비슷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 한국형 CA저장고를 일반 저온저장고와 비교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사과 10톤을 저장했을 때 연간 수익이 일반 저온저장고는 1,200만원이었으며, CA저장고는 2,100만원으로 1.67배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형 CA저장고'의 핵심기술 2건을 특허 출원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 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과 재배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CA저장 적용 농산물 품목을 사과뿐만 아니라 포도·감·대추 등 다른 작목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센서기 단체표준 등록으로 스마트팜 산업화 기반 공고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스마트팜에 활용되는 핵심센서기 13종에 대한 단체표준이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 단체 표준은 생산자 모임인 협회 등에서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규정으로, 스마트 온실의 내외부에서 활용되는 센서들에 대한 기계·전기적 연결 표준, 전원 전압, 측정범위 등을 정의한다.

○ 지난해 12월 스마트팜 제어기 9종을 단체표준 등록한데 이어 6개월 만에 센서기 13종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스마트팜 시설원예 분야는 총 22종의 핵심 기기가 표준화된 상태다.

○ 스마트팜 센서·제어기 단체표준 등록결과('16. 6월 기준)

- 센서기(13종) : 온도, 습도, CO_2, 일사, 풍향, 풍속, 감우, 광양자, 토양 함수율, 토양 수분장력, EC, pH, 지온 센서('16. 6.)

- 제어기(9종) : 천창, 측창, 보온재, 커튼, 환풍기, 유동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15. 12.)

- 등록내용 : 접속단자, 결선형식, 전원전압, 출력신호 등 기계적·전기적 연결규격, 작동방식, 측정범위

○ 주요 기자재 표준화로 인해 제품 간 호환성이 확보되는 등 스마트팜의 산업화 기반은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 먼저, 농가는 자신의 농장에 맞게 센서·제어기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어 맞춤형 스마트팜 구축이 가능해지고, 부품 교환 등 A/S 편의성 또한 증대된다.

○ 기존에는 A사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패키지로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사의 제어기, B사의 센서 등을 조합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형 스마트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소모품 교체 시에도 여러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사후관리 비용도 경감된다.

○ 생산기업은 주요 기자재의 사양과 규격이 표준화되어 제품설계 및 개발비용이 감소하고, 자재공급 기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총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스마트팜 보급단가가 인하되고, 이는 농가의 투자부담을 완화시켜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가 기대된다.

○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핵심 기자재 표준화로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및 신뢰성이 향상되어 스마트팜 시장 내 국산 제품 점유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 “2017년부터는 표준 장비를 적용한 제품만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품질 좋은 스마트팜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산업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향후 양액기 등 시설원예 표준화 범위 확대 및 축산분야 표준안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으로 새 도약 발판

– 5일 출범… 생산·유통·가공산업 전반 전략적 육성기대 –

○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친환경농업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 조합 등이 주체가 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 출연금(최대 50%)을 활용해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소비촉진,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산업 전반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 이는 품목이 155개로 다양한데다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돼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깬 것으로 농식품부·도·시·군·농업인·인증기관이 공동 노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 특히 전라남도는 시·군, 친환경단체, 인증기관 등과 합심해 자조금 사업을 홍보했고, 그 결과 친환경인증 농업인 80%(1만 7천농가)가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했다.

○ 이낙연 도지사는 출범식에서 "친환경농업이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함정인 성장통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 이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확보, 판로확보, 재배기술 향상, 수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라며 "이같은 노력을 기울여온 친환경농업인들이 앞으로 친환경농업 문제점들의 해법도 능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85억 추가지원

– 농가 경영안정 위해 소규모 영세농가 미지원 농가 우선 –

○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유도를 통한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185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526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 지원 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단미·배합·보조사료 뿐만 아니라 조사료 및 섬유질류 배합사료(TMR)도 지원 가능하다. 신규사료 구매자금은 사료 공급업체와 구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 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 지원 한도는 한우·낙농·양돈·양계·오리농가는 6억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천만원이다. 선정금액은 사육 수와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소규모 영세농가 AI 피해농가(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 준전업농가, 전업농가, 기업농가 순이며, 전년 미지원자, 부분지원자, 전액지원자 순으로 지원한다. 영세농가는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마리, 오리 1천 666마리 미만이다.

○ 양돈은 2013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1천마리 미만 농가, 모돈이 없었던 농가 순이며, 나머지 축종은 별도의 전제 조건이 없다.

○ 전반기에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직업, 사육 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해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되더라도 농가별 대출심사가 완료되는 순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융자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대출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

* 출처 : 전라남도

8. 해외 농업정보

◈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농업기술 협력 전략개발과 협력국 확대

–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집행이사회 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5일부터 8일까지 농촌진흥청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 등에서 2016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집행이사회를 개최했다.

○ 집행이사회에서는 2016~2025년까지 KAFACI 중장기 전략계획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선정과 신규 회원나라 가입승인 등 KAFACI 현안사항에 대해 결의했다.

○ 먼저, 2016년 4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KAFACI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업기초과학, 식량작물, 원예, 축산, 농촌지도의 5프로그램에 대한 2016~2025년 KAFACI 중장기 전략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 한편, 잠비아를 KAFACI 신규 회원나라로 승인함으로써 KAFACI 회원나라는 총 20나라로 확대되며, 회원나라가 공동으로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아프리카 협력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은 “이번 2016 KAFACI 집행이사회에서 아프리카 회원나라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신규 회원나라 확대를 통해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사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곡물의 무한한 변신(미국 뉴욕)

○ 콩과 같은 곡물은 치즈버거, 샐러드볼, 스낵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 글루텐프리 곡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신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처 시장에서 퀴노아 같은 발아곡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과자부터 발아곡물, 버섯, 두부로 만들어진 치즈버거가 개발되어 판매 중인 것처럼 곡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식품으로써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곡물로 만들어진 한 끼

- 밀레니얼세대는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을 골라 담아먹을 수 있는 식당을 선호하며, 이에 맞춰 곡물샐러드, 곡물수프 등 움푹한 용기에 담긴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 발아곡물로 만든 몸에 좋은 과자

- 곡물을 재료로 한 과자는 일반적인 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긋한 풍미를 준다.

○ 글루텐프리 제품

- 병아리콩으로 만들어져 팔리고 있는 글루텐프리 파스타는 13g의 식이섬유와 25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시사점 : 밀가루, 보리 등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이 소화를 방해하고 알러지를 일으킨다고 하여 글루텐프리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 이에, 병아리콩·아마씨·치아씨드와 같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글루텐이 없다고 알려진 곡물을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임.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7. 11.(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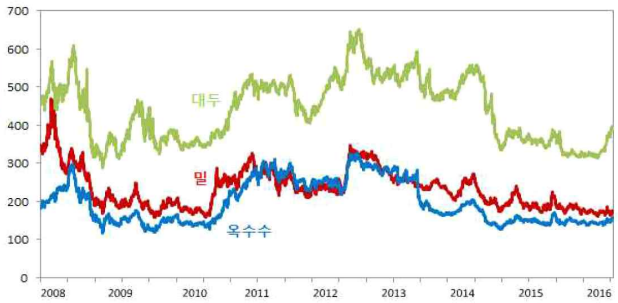
순조로운 수확 진행과 풍부한 세계 공급량으로 인한 밀 선물가격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6.07.08)	전일대비	전월평균 ('16.6)	2015 평균
밀	154.54	▼1.1%	174	186
옥수수	137.63	▲2.3%	161	148
대 두	400.35	▲3.4%	421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시황

밀 선물 가격은 좋은 수확 조건과 순조로운 수확 진행으로 인해 전일 대비 1.1% 감소하였음. 현재 풍부한 세계 공급량 또한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USDA에 따르면 주간 밀 수출은 수출 기대치인 400,000~600,000톤 보다 높은 825,300톤을 기록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는 시카고 밀 72건의 수도와 적색 경질밀 119건의 수도를 보고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적색연질밀은 부셸 당 $4.29에서 약 3센트 하락하였으며, 캔자스 시티 상품거래소의 적색 경질밀은 부셸 당 $4.14에서 약 2센트 하락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미국 옥수수 선물 가격은 이번 주 최근 2년래의 최저가격을 기록한 이후 매도커버와 Bargain buying으로 인해 전일 대비 2.3% 상승하였음. USDA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주간 구곡 수출 판매는 369,700톤이었으며, 신곡 수출 판매는 443,300톤이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3.47에서 약 5센트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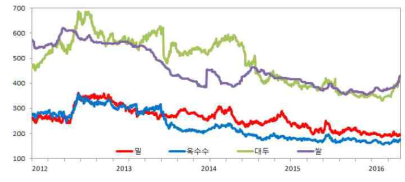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시황

대두 선물 가격은 활황종목인 대두 계약이 6주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Bargain buying으로 인해 다시 상승하였음. 높은 주간 대두 수출 판매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USDA에 따르면 대두박의 주간 수출 판매는 77,400톤, 대두유 수출 판매는 18,000톤을 기록하였음. USDA의 데일리 보고 시스템에 따르면 개별 수출업자들은 중국에 미국 대두유 35,000톤을 판매하였음. 말레이시아 팜 오일 선물 가격은 경쟁 상품인 대두유의 하락에 따라 5% 하락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가격은 부셸 당 $10.64에서 약 14센트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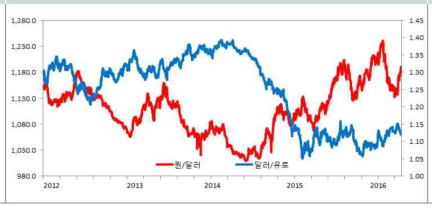
관련동향

-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단기 수송 수요 둔화로 인해 감소하였음.
- 8일 국제유가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 나이지리아 석유시설 테러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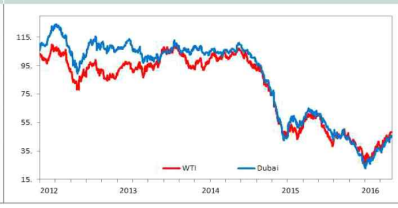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75	▼1.1%	환율	원/달러	1,156.6	▼0.8%
	옥수수	168	–		달러/유로	1.1059	▼0.3%
	대두	422	▼4.5%	국제유가	WTI	45.41	▲0.6%
	쌀	427	–		Dubai	42.50	▼5.5%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8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7.07(수출가격), '16.07.08(환율), '16.07.0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전남 정보화농업인 400명 한자리에 집결

- 농식품 3.0 실현을 위한 전남 정보화농업인의 역할-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과 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기)가 공동 주최하는 「제8회 전남 정보화농업인전진대회」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영광힐링컨벤션타운에서 개최된다.

○ "농식품 3.0 실현을 위한 정보화농업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진대회에는 전남 정보화농업인 400여명이 참여한다.

○ 이번 전진대회는 전남 정보화농업인들이 미래농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업경영 기술을 습득하고 상호정보 교류의 장을 열어가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업정보 활용 생산비절감 및 판매 전략, 고전에서 배우는 농업철학 등의 특강, 개회식, 우수사례 발표, 농·특산물 전시, 지역문화탐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0명(농업인 7, 공무원 3)에게 도지사 표창장이 전수된다.

○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개회식 축사에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전남 정보화농업인들이 농업정보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적극 활용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식품부, 「米's Korea를 찾아라!」 공모전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밥과 쌀 요리 맛집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米's Korea를 찾아라! 공모전에 나선다.

○ 이번 공모전은 맞벌이 부부 증가, 외식 문화 발달에 따라 외식산업이 쌀의 최대 소비처로 떠오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마련되었으며, 식자재로써 쌀의 우수성을 확산하고, 집 밖에서도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이다.

○ 공모전은 '밥맛이 남다른 米's KOREA'와 '쌀 요리로 소문난 米's KOREA' 2개 부문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 숨겨진 밥 또는 쌀요리 맛집을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추천은 7. 11.(월) ~ 8. 15.(월)까지 온라인 홈페이지(www.rice-contest.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 밥맛이 남다른 米's KOREA는 쌀밥·흑미밥·잡곡밥·곤드레밥·대나무 밥·리조또 등 밥 자체가 맛있는 집을, 쌀 요리로 소문난 米's KOREA는 쌀 면 요리(파스타·국수 등), 쌀 디저트(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등 쌀을 활용한 요리가 맛있는 집을 추천하면 된다.

○ 농식품부는 추천된 맛집에 대해 식미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20곳의 米's KOREA를 선정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93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